광주U대회 성공 노하우, 정부·평창조직위·강원도에 전수

광주시 11~12일 무주태권도원서 121명 참석 결산보고

예산 절감·악재 극복 흥행·안전 대회 등 지식·경험 발표

광주시가 역대 최고의 성공 대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의 10대 주요 성과를 중심으로 성공 노하우를 정부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강원도에 전수한다.

광주시와 광주 U대회 조직위원회는 "11일부터 1박 2일간 전북 무주태권도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5명, 평창 조직위 80명, 강원도 15명 등 1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U대회 디브리핑(결산보고)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디브리핑을 통해 대회 준비 및 개최과정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 U대회는 메르스 사태와 태풍, 북한 불참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규모와 흥행, 운영, 기록, 안전 등 대회 전반적인 측면에서 성공대회라는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디브리핑 결산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광주 U대회 조직위,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 등에서 꼽는 광주 U대회의 가장 큰 성과는 저비용·고효율 경제 대회로 국제스포츠 대회의 롤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경기·훈련장 69개 중 4개만 신설하고 65개 경기장은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는 한편 행사 간소화 및 소모품 물품 재활용 등을 통해 1999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 총 대회 비용으로 6000억원 안팎이 소요됐다. 이는 2013년 카잔 U대회 8조 5000억원,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2조 1000억원과 비교하면 매우 저렴한 비용이다.

또 전국을 뒤흔든 메르스 사태에도 역대 대회 중 가장 많은 143개국 1만2337명의 선수단이 참가, 대회 흥행을 이끌었다. 대회 기록도 풍성했다. 양궁 여자 리커브 종목에서 개인 및 단체 등 2개의 세계 신기록이 나왔으며, U대회 신기록도 27개나 기록했다.

대한민국 선수단이 국제종합스포츠 대회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오른 점도 성공 요인 중 하나다. 금메달만 47개를 따내 이전 카잔 U대회(금 17개)의 두배를 넘어서는 성과를 냈다.

FISU와 국내외 언론들이 인정한 또 다른 노하우는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안전대회'였다는 점이다.

대규모의 국제대회의 경우 인명사고 등이 다반사지만, 이번 광주 U대회에선 1만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도 단순 폭력사건조차 단 1건도 없었다.

광주 U대회 조직위는 사전 합동 시설 점검을 비롯한 IT를 활용한 첨단 검문검색, 대회 시설 안전요원 8만3000명(연인원) 투입 등의 효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시민 서포터즈 등 광주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중심의 대회가 성공 개최의 가장 큰 힘이 됐다는 결과물도 내놨다. 자원봉사자만 9800명이 투입됐으며 5만명의 시민 서포터즈도 경기장 곳곳에서 대규모 응원 등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탰다.

광주 U대회 조직위는 이 밖에도 ▲광주·전남·북 시·도민이 함께 대회를 준비한 화합의 대회 ▲완벽한 의료·방역체제 구축으로 대한민국의 메르스 극복을 전 세계에 알린 대회 ▲국제적 규모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선수촌 및 신설경기장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관광상품 개발로 문화·관광 대회 완성 등을 대회 성과로 꼽았다.

김윤석 광주 U대회 사무총장은 "광주 U대회의 성공은 정부와 광주시의 대회 성공에 대한 강한 의지와 지원, 조직위 직원들의 열정, 그리고 광주시민의 협조가 버무려진 결과물"이라면서 "이 같은 저비용·고효율 성공 대회의 노하우를 백서 등을 통해 타 국제대회 준비·개최 등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U대회 10대 성과

1. 국제종합스포츠 사상 최초 1위 흥행 성공
2. 저비용, 고효율 국제 스포츠 대회의 롤 모델 제시
3. 세계신 2, 대회신 27개 등 풍성한 기록
4. 국제연맹(FISU) 및 국내외 언론 안전 대회 평가
5. 완벽한 방역체계 메르스 극복 전 세계에 홍보
6. 유니버시아드 역대 최대 규모 선수단 참가
7. 자원봉사, 서포터즈 등 시민이 참여 시민 중심 대회
8. 광주, 전남·북 시·도민 함께 대회 준비 화합 대회
9. 국제 규모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선수촌 및 신설경기장
10.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관광 상품개발 문화·관광 대회

설장구 춤 배우는 中연변대학생들 중국 연변대학교 학생들이 10일 진도 국립 남도 국악원에서 설장구 춤을 배우고 있다. 오는 15일까지 '한국을 가슴에 품다'라는 주제로 진도 국립남도 국악원에서 열리고 있는 '2015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에는 중국, 미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4개국 5개팀 100여명이 참가해 한국무용과 기악, 염색체험을 비롯한 남도 여행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공사 비정규직 281명 정규직 전환

광주시·산하기관·공사 등 정규직 전환·예정자 1300명

일부 "인건비 상승" 반발도

광주시 산하 기관인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역무, 청소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11일 서구 마륵동 본사에서 1단계 직접고용 전환예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대상자는 역무와 청소, 시설관리, 경비와 주차 등 총 331명 중 계약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한 50명을 제외한 281명이다.

이들은 다음달부터 2년 기간제 근로자 신분을 거쳐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올 상반기에는 시 본청 청소·시설 비정규직 71명이 정규직으로, 지난달 1일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도 71명이 사실상 정규직으로 각각 전환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민선 6기 윤장현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시는 본청에 이어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까지 직접 고용을 통한 정규직화를 유도하고 있다.

광주시와 직속기관, 공사·공단 등 공기업과 20여개 출자·출연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전환할 대상자는 1300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일부 시 산하 공기업 등에서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놓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인력 용역업체 등에 지급하는 비용 대비 오히려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조건 개선은 공사·공단의 평가 항목으로 논할 사안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이며, '사람중심' 민선 6기의 핵심 시정 철학"이라며 "'차별이 없는 사회'는 더 이상 놓치거나 늦출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불변의 원칙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해군 호위함 광주함 진수

윤시장 등 참석 오늘 진수식

대한민국 해군 호위함 광주함(FFG-817) 진수식이 11일 경남 창원 STX조선해양에서 열린다.

이날 진수식에는 윤장현 광주시장을 비롯한 광주시의원, 시민사회단체장, 해군참모차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호위함은 특별·광역시·도, 도청소재지의 명칭이 사용되는 데 1번함은 인천함, 2번함 경기함, 3번함 전북함, 4번함 강원함, 5번함 충북함에 이어 6번함은 광주함이다. 이날 진수식에서는 관례에 따라 윤장현 광주시장의 부인인 손화정 여사가 진수자로 나서 진수(진수도끼로 테이프 절단 및 볼 터트리기) 및 샴페인 브레이킹(샴페인 병을 선체에 깨뜨리기) 등의 진수의식을 진행한다.

2300t급인 광주함은 전장 114m, 전폭 14m, 높이 25m, 최대속력은 30km이며, 승조원은 120명 규모다. 광주함은 오는 2016년 10월 인도 인수되며, 2017년 3월 실전에 배치될 예정이다.

주요 임무는 책임 해역 초계 및 감시를 비롯한 적 항공기·수상함·잠수함 공격, 핵심목표 타격 등이다. 광주함에는 3차원 탐색레이더와 신형 소나, 대유도탄방어 유도탄, 예인형 어뢰 탐지기 등 최첨단 장비가 탑재된다. /박진표기자 lucky@